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3~8/1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 행운 상징 컬러링 북	박혜원	담앤북스
2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불광출판사
3	그림자 속의 향기	청전	담앤북스
4	나는 누구인가	법산경일	백산
5	예수재의범	해사	운주사
6	우리 단청 화첩	선웅/김지민 외	담앤북스
7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8	뿌리를 담은 밥상	법송	도서출판 자자
9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원조 각성	비움과소통
10	붓다의 철학	이중표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붓다의 가르침:라훌라스님의 현대적 사고로 쓰인 불교해설서	월폴라 라훌라 (Walpola Rahula)	맑은소리맑은나라
2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현천 역	선요가
3	시골농부의 마음공부	김일문	운주사
4	정좌수도 강의(남회근 저작선10)	남회근/신원봉	부키
5	무비 스님의 천수경(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6	통찰의 체험: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조셉 골드스타인	운주사
7	중론(상)	용수/청목 석/구마라집 한역	여래
8	한자풀이 정토삼부경(미타삼부경) 극락가는 길	김진철 편역	법화원
9	중론:산스끄리뜨 게송의 문법 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10	숫타니파타-붓다의 말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등단 30년, 문태준 시인의 '새 국면'



풀의 탄생
문태준 시집
문학동네 / 1만2000원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문태준 지음
마음의숲 / 1만80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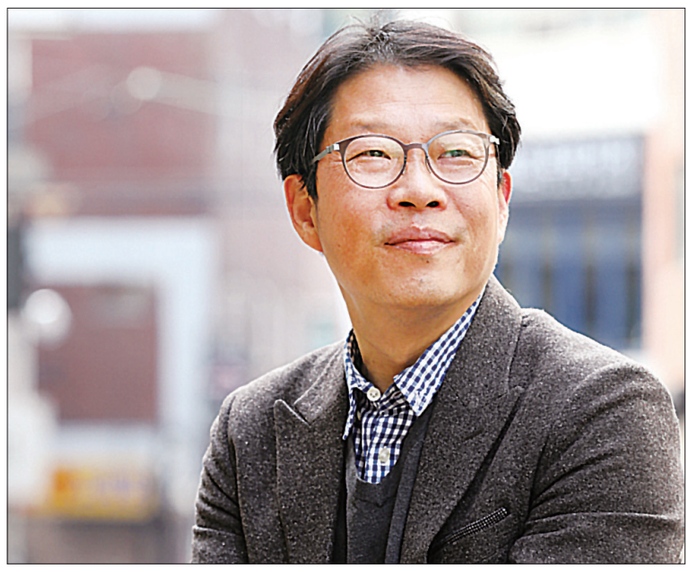
'한국 서정시의 수사(修士)'로 불리는 문태준 시인〈사진〉이 제주로 삶터와 일터를 옮기며 맞은 '새 국면'을 담은 시와 산문이 출간됐다.

1994년 등단해 올해로 시력(詩歷) 30년을 넘긴 시인의 근작 〈풀의 탄생〉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전개되는 그의 새 국면을 엿볼 수 있는 시편들로 가득하다. 시인은 '제주 애월읍 장전리'에서의 삶을 "풀밭의 살림을 일궈 풀과 산다"는 말로 소개한다.

"풀을 뽑으러 와서/풀을 뽑지는 않고//보고 듣는/풀의 춤/풀의 말//이러하나 저러하나/넘치거나 모자라거나/수줍어하며/그러하다는/풀의 춤/풀의 말" –'풀' 중에서

〈풀의 탄생〉의 4부 구성은 사계(四季)를 담은 편지로 읽힌다. 시인은 편지에 제주에서 보고 만나고 느낀 풍광과,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 1부에는 흙과 벗 삼아 살아가는 시인의 오늘과 이제는 '흙 속'에 있는 지난날, 그리고 흙 위로 피어오르는 생명을 노래하는 시편을 모았다. 2부에서는 여름날의 풍경을 향수 어린 목소리로 읊고, 3부에서 시인의 가장 '처음'에 대한 그리움을, 4부에는 덧없고도 아름다운 삶의 담아냈다.

시인은 출간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홉 번째 시집이자 3년 만의 신작에 대해 "앞서 펴낸 시집보다 제주에서의 생활이 더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며 "듬성듬성하게, 멈추고, 쉬고, 곁을 두는 그런 시가 이번 시집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흙과 바다가 지닌 거대한 생명 세계를 접하면서 내가 다른 생명 존재와 함께 호흡하고 흐르면서 동근(同根)으로서 공동의 살림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전했다.



제주의 삶 담은 시·산문집 출간
자연이 알려 주는 '꽉 찬 필연'
"나는 모든 생명과 연결된 존재"

시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풀'에 대해선 "좀 거창하게 말하면 풀을 통해 생명의 근원과 본래의 면목을 본다"며 "잎 나고 봉오리 맺고 꽃 피고 지는 현상에는 어떤 조건과 원인이, 말미암은 것이 대게는 있다는 '꽉 찬 필연'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한다.

문태준 시인의 산문은 그의 시만큼이나 간결하고 고요하다.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을 잊어요〉에도 제주의 사계절이 담겨 있는데, 마침 이 계절 여름에 먼저 눈길이 간다. 1부 '여름-여름 정원에 은하 같은 수국은 피어'에는 제주 마을의 한여름 정취가 가득하다. 극적인 소나기가 지나고, 베어내고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 있고, 작약꽃이 마당을 환히 밝히는 계절이 담담한 글 속에 전해진다.

도시에서 좀체 느낄 수 없는 이웃 간의 정도 애틋하다. 참외를 가져온 이웃에게는 산딸기 잼을 건네고, 그 참외를 나눠 먹은 옆집은 새콤한 매실을 두고 간다. 이웃 모두가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낮의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동하고, 모나지 않게 무던하게 마음을 사용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 이들이다.

문태준 시인의 산문을 읽는 기쁨 중 하나는, 그의 시가 어떻게 영글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옆집 사람이 나무 의자를 만들어 화단 앞에 놓아둔 것을 보고선, 그 일을 시로 지었다.

"옆집 사람이 나무 의자를 만들어 붓꽃 화단 앞쪽에 내어놓았기에/걸음을 재촉하며 집에 돌아와/그 나무 의자를/그 모양 그대로/마음속에 떠올려/앉아 보았다//내 의자는 톱과 못을 쓰지 않고 만든 의자/내 의자는 아롱거리는 아지랑이로 만든 의자" –'우치(愚痴) 3-나무 의자를 만들다' 전문

오래된 밭을 일구고 풀을 뽑으며 꽃과 나무와 자연을 기록하는 시인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골의 자연 속에서 살면서, 또 화단을 가꾸고,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생명 존재들과 관계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연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이번 시집과 산문은 그가 쓴 '농부 일기'이자 '사유 일기'가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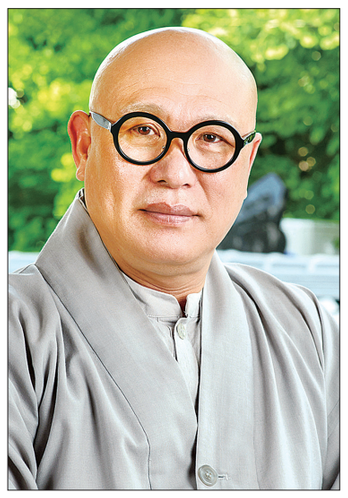
▲저자 **문태준 시인**은?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시집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아침은 생각한다〉와 산문집 〈느림보 마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나는 첫 문장을 기다렸다〉 등을 펴냈다.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박인환상, 무산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제주BBS 총괄국장이다.

일상적 경험 속 비일상적 순간



응시와 가장 가까운 곳
승한 스님 시집
몰개 / 1만2000원



안과 밖, 있음과 없음, 색(色)과 공(空)의 개념을 주된 모티프로 삼아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에 천착해 온 시인 승한 스님〈사진〉이 다섯 번째 시집 〈응시와 가장 가까운 곳〉을 펴냈다.

스님은 이번 시집에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고, 일상적 경험 속에서 비일상적인 순간을 지향한다. 이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 표현된다.

"내부가 외부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식(糧食)과 걸음이 필요했을까 내부가 외부의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구름과 바람과 햇볕과 비의 날들이 필요했을까 풀이 색이 되기까지 탈색이 다시 착색이 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용서와 사랑과 채찍과 혼돈의 외경(畏敬)이 필요했을까" –'쪽' 중에서

스님은 '시인의 말'에서 "전작 '폐쇄병동' 연작시집이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의 내 시선은 외부의 내부로 향해 있다"며 "시가 있어 살았다. 얼마 동안 더 시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 있는 동안 쓰고 싶다. 나를 치유하는 가장 거룩한 약이므로, 충일한 행복이므로"라는 말로 시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숙생의 그 업 다 하는 그날까지, 저는, 저는 동지섣달 그 얼음 새벽, 그 얼음 목탁, 그 얼음 죽비 소리 속에 고드름으로 깃들어 살겠습니다 한 마리 눈 뜬 얼음 물고기로 깃들어 살겠습니다 얼음 만다라로 수놓여 살겠습니다" –'얼음 만다라'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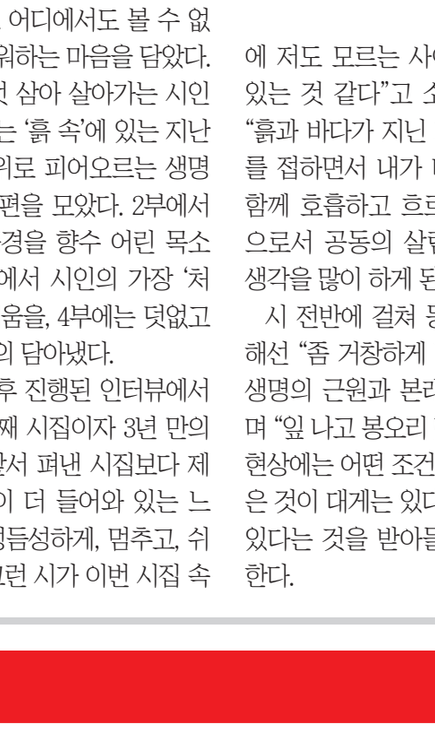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고봉준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폐쇄병동'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이번 시집의 특징은 산문시의 형태를 띤 작품이 많고 불교적 사유가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짚고 "스님의 시는 불교적 사유와 시적 사유가 일상의 상투적 인식을 벗어나는 순간에 교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설했다.

문태준 시인은 추천사에서 "승한 스님의 이번 시집은 폭포처럼 곧장 쏟아져 내린다. 걸림이나 막힘이 없다. 번개가 치는 듯한 파격을 선보이면서도 원형의 세계를 꿈꾸는 걸출한 시집"이라고 평했다.

승한 스님은 19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됐다. 시집 〈수렵도〉, 〈퍽 환한 하늘〉, 〈아무도 너의 깊이를 모른다〉, 〈그리운 173〉 등을, 산문집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좋아좋아〉를 펴냈다.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주간을 역임했다. 2023년 제15회 불교문예작품상을 수상했다.

여수령 기자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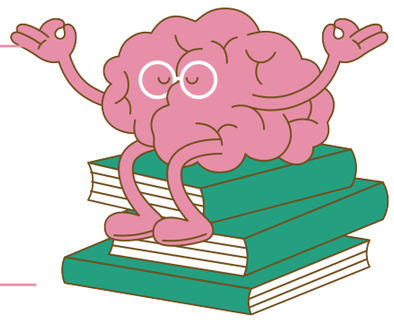


명상 수행자의 뇌는 다르다

마음 챙김 명상법

명상을 통해 뇌세포를 회복하고
치매를 늦추는 구체적 길을 보여준다.

뇌는 매일 피로하다.
생각, 감정, 스트레스는 뇌를 소모시킨다.
마음챙김은 노화하는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가장 수행적인 방법이다.
이제 명상이 '뇌 건강법'이 되는 시대이다.



늙지 않는 뇌의 비밀
마음 챙김 명상법
혜명 김말환 | 204쪽 | 16,500원

무심보광 전 동국대학교 총장스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선수행에 의한 심리상담법 연구》 이다. 군법사로 활동하며, 군 생활에 부적응하는 장병들을 위한 선도 및 치유 활동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훈하였다. 전역 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상담 전공 객원교수, 서울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미래융합교육원 민간자격과정 '명상 지도 전문 강사과정' 주임강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서울 관악산 화승사에서 선심리 상담 및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선수행과 심리치료》《도표로 읽는 명상입문》《명상수행자를 위한 내면의 통찰과 자기성장》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선문답을 통한 심리 고찰》(한국불교학, 제29집, 한국불교학회, 2001)《심우도의 수행과 자기실현》(대각사상연구, 2002) 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